



'세 얼간이'



'마리 콤'



'퀸'

영화와 요가로 만나는 인도

문화전당 18~20일 인도문화제

'세 얼간이' 등 영화 6편 상영
요가·볼리우드 댄스 강좌
전 프로그램 무료...인터넷 예매

2015 인도 문화제

날짜	시간	작품
18일 (금)	14시30분	개막식·축하공연
	15시15분	영화 'Oh My God'
19일 (토)	19시	영화 '마리 콤'
	13시	영화 '안콘 데키'
20일 (일)	15시	요가 강좌
	16시30분	영화 '쉽 오브 테세우스'
20일 (일)	12시30분	영화 '세 얼간이'
	16시30분	볼리우드 댄스 강좌

인도 영화를 흔히 할리우드에 빗대 볼리우드라고 부른다. 볼리우드(Bollywood)는 뭄바이의 옛 지명인 볼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인도의 영화 산업을 일컫는 단어다. 인도 영화는 언제나 유쾌하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흥겨운 춤과 노래는 인도 영화의 필수 요소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대표 문화는 뭄바이. 아마 많은 이들이 요가를 접지 않을까.

인도영화도 보고, 춤도 추고, 요가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이 주관 인도대사관(대사 비크람 K. 도래스와미)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2015 인도문화제' <일정은 표 참조>를 개최한다. 전당은 지난달 인문강좌 '신의 나라, 인도를 만나다'를 통해 인도의 종교와 역사, 사회와 문화를 살펴봤었다.

이번 인도문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총 6편이다. 상영작 중에는 인도 영화 최대의 히트작 '세 얼간이'(2009)가 눈에 띈다. 최고 엘리트만 모이는 인도 공과대학에서 벌어지는 천재들의 유쾌한 반란을 그린 코미디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첸나이 익스프레스' 개봉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인도 영화다.

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인도 최초의 여성 복서이자 스포츠 스타인 마리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마리 콤',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믿기로 결심한 한 사내의 이야기를 그린 '안콘 데키', 각각

이식을 통해 시력을 찾은 시각장애인 사진작가와 신장 이식을 받은 젊은 증권 중개인 등을 통해 정체성, 삶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쉽 오브 테세우스'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무신론자 가게 주인이 신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오 마이 갓', 결혼식 하루 전 파혼을 당한 여자 주인공이 홀로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퀸'을 만날 수 있다.

영화 상영은 극장3(문화정보원 지하 3층)에서 진행된다.

19일 오후 3시에는 인도 요가 강좌가 진행된다. 미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법으로 많이 알려진 요가는 본질적으로 힌두교에서 행하는 종교적, 영적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요가 강좌는 전문 인도인 강사와 함께 진행된다.

또 20일 오후 3시에는 볼리우드 댄스 강좌가 열린다. 전문 인도인 강사로부터 인도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화려한 볼리우드 댄스를 직접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다.

강좌는 문화전당 북동5관(문화창조원 지하 2층)에서 진행되며, 요가매트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참가자는 강좌에 맞는 편안한 복장으로 전당을 방문하면 된다.

모든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예매는 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어떤 검열도 반대"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형 미술관 새 모델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첫 외국인 관장으로 임명된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가 "나는 그 어떤 검열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리 신임 관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작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항상 동반자처럼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관장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장 재직 당

시 스페인 군주제를 풍자하며 예술과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을 전시하지 않으려고 행사를 전시개관 직전에 취소하고, 두 명의 큐레이터를 해고했다는 '전적 논란'에 휩싸였던바 있다. 이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전시자가 특정 정보를 숨겼기 때문에 전시가 지연됐고, 나는 자연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한 것"이라며 "큐레이



터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것이 거짓 정보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또 "광주 비엔날레가 아시아 최초로 아티스트와 사회 사이에 제도적인 관계 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새 모델 구축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 모델을 수입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는 미술관 모델을 창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산의 울림...자연과 소통하라

한국화가 이구용씨 15~21일 은암미술관 '산-사유'전



◀'산-사유'

한국화가 이구용씨가 15일부터 21일까지 은암 미술관에서는 '산-사유(山-思維)'전을 연다.

전통적인 산수화의 필법을 새로운 조형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표현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꾸준하게 작업에 매진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작가의 작품 속에 주로 등장하는 '산'은 존재의 본질과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작가는 중첩된 채색을 통해 만들어진 무늬로 산을 형상화함으로써 현대인이 살아가는 시간, 공간에 대한 성찰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남종화의 정신과 형식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성을 접목시켜 실험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평면 회화임에도 입체감이 느껴진다. 선과 점으로 된 수묵의 명암을 대비시키며 마치 조소 작품처럼 굴곡감이 도드라진다. 신성한 산의 기세와 생명의 울림과 호흡을 거친 필획에 담겨 승고함과 근원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전통적 가치 체계가 현대에서 다시 조명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예술대학 및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제7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의재 허백련기념 수목대전'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성혜림 개인전 27일까지 해외문화예술공간

성혜림 작가가 해외문화예술공간에서 27일까지 '어제의 나에게 오늘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성 작가는 그동안 '내편아아-그녀 내편의 상처', '기억의 파편 그리고 지금' 등 내면의 불안감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녀는 삶의 도처에서 맞서야 하는 두려움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며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린아이처럼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묘사했다.

이번 전시 주제 '어제의 나에게 오늘을 묻다'는 그동안 작품에서 보여준 감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작품 '내일의 나에게 묻다'는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채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가 등장한다. 마치 세상사를 초월한 듯한 아이는 누군가의 푸념을 묵묵히 듣고 있다.

성씨는 "성인들이 지닌 내면의 여러 마음을 아이의 감성으로 표현했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마음 속 어린아이에게 물어보고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씨는 2011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2014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문의 062-233-9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일의 나에게 묻다'

울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쪼갬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쪼갬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